

예루살렘의 영광, 중요성, 그리고 예루살렘이 겪을 어려움

I. 예루살렘의 예언적 부르심

A.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 거하시며 영원히 사할 것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온은 항상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서 영원히 거하기로 결정한 장소이며, 이곳의 이름을 따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더라도 이곳은 독특한 곳이다.

² ...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 ³ ...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 (슌 8:2-3)

B.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곳이다. 예수님의 보좌와 전 세계적인 정부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것이다.

¹⁷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 (렘 3:17)

C. 왜 예루살렘에 대해 집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곳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도시에 대해 유례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쉽게 잊곤 하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사역과 재정,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기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히 말해 예수님께서서 그러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목적이 “예루살렘 중심”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분의 목적의 편에서야만 하며, 이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D. 우리가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둘러볼 수 있는 방법(역자주, 시 48:12) 중의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된 영광스러운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이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위해 함께 서는 것을 통해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언적인 역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증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옛적 돌들을 연구할 수 있다.

³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시 87:3)

¹²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¹³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 48:12-13)

¹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사 66:10)

¹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 102:14)

- E.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훨씬 전에 예루살렘을 주권적으로 택하셨다. 홍해를 건넌 후 즉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배 받으실 성전, 성소의 장소를 주권적으로 택하셨다고 예언했다 (출 15:1, 17).
- ¹⁷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예루살렘]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한글 KJV: 주께서 ... 만드신 곳이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¹⁸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출 15:17-18)
- ¹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신 12:14)
- F.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며, 사단은 이곳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그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 것을 전부 포함해서 800 번 이상 언급되고 있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재한다 (대하 33:4; 시 488; 욥 3:20; 미 4:7).
- ¹³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 132:13)
- ⁶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 (대하 6:6)
- ²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 87:2)
- ⁶⁸ 오직 [주께서]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시 78:68)
- G. **예루살렘의 유일성:** 예수님께서서는 이 도시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유례없는 약속을 하셨다.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왔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도 세계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도 중심이 된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전장 중 하나이다.
- ³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 (창 12:3)
- ⁵ ...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한글 KJV: 둘러 있는 나라들 가운데 두었으나] (겔 5:5)
- H.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에게 번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⁶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 ⁹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 122:6-9)

- I. **예루살렘을 이해하기:** 우리는 성경이 예루살렘의 축복과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이는 내가 부르는 “**동일한 종류로, 그러나 적은 강도로**”의 원칙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대 환란과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에 부으실 영광과 심판 모두는 현재 시대의 열방과 교회 가운데 “**동일한 종류로, 그러나 적은 강도로**” 부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배역한 것으로 인해 가장 모진 심판을 받을 것이며, 회개할 때에 가장 큰 분량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선택적 신학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교회에 주어졌으며, 심판은 이스라엘에 부어진다고 보고 있다.

II.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 A.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도성이라고 선포하시며, 큰 임금의 성이라 부르신다 (마 5:35). 예루살렘은 영원히 온 땅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시 48:2). 그분은 자신의 재림 때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실 것이다 (사 61:15; 62:7).

³⁵ ...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마 5:35)

²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시 48:2)

¹⁵ ... 이제는 내가 너[예루살렘]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사 60:15)

⁷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하나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7)

- B. 주께서는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온 땅의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사 60:2-3; 62:1-2).

² ... 오직 여호와께서 네 [예루살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³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 60:2-3)

²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 (사 62:2)

- C. 예수님께서서는 재림 때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다.

³¹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³²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 25:31-32)

III.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사이의 관계

- A.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늘과 땅의 영역을 하나로 합치시는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영역을 말한다. **땅**은 물리적인 영역으로써 자연적인 현상과 인간의 감성과 물리적인 인지가 완전하게 표현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자연 현상은 중단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측면으로 인해 향상될 것이다.

⁹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 ¹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렘 1:9-10)

B.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의도적으로 땅의 예루살렘과 비슷한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이는 두 예루살렘이 역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 땅으로 두 번 내려온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이며 (계 21:10), 그리고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이다 (계 21:2).

¹⁰ ...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 21:10)

C. 예수님의 하나인 보좌는 새 예루살렘에 있고, 동시에 천년왕국의 땅에 존재하게 된다 (렘 3:17; 겔 43:4-7; 속 6:12-13; 계 22:3).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과 땅의 통치는 완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그분의 보좌는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땅에 있으며 (렘 3:17), 또한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계 22:3). 예수님의 보좌는 땅과 하늘의 측면을 모두 가지게 될 것이다.

³ ...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 있으리니 ... (계 22:3)

⁴ 여호와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천년왕국 성전]으로 들어가고 ... ⁶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 ⁷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 (겔 43:4-7)

D. 내 의견으로는,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예루살렘 바로 위로 내려올 것이라고 본다. 산-도성-집인 예수님의 보좌는 광대한 통치 단지가 될 것이며, 여기에는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며, 이는 내가 “영광의 통로”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새 예루살렘과 연결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동안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는 이 땅의 위에 높이 떠 있는 펼쳐진 도시가 될 것이다. 이는 모든 예언적인 성경 구절들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구절들 안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E. 계 21:1-8 절에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영원한 상태가 그려지고 있다. 계 21:9-22 절에서, 요한은 영원한 부분과 일시적인 부분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부활한 성도들의 영원한 상태가 천년왕국 시간 동안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있지만 아직 땅에 내려오지 않은 것에는 **4 가지 이유들**이 있다. (mikebickle.org 을 참고)

F. 계시록 21:9-22:5 절은 천년왕국 **동안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언급된 일들의 성격이 영원한 상태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계시록 21:9-22:5 절은 계시록 17:1-19:10 절과 마찬가지로 삽입 구절이다. (이는 새 땅 이후에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천사가 요한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신부를 보여주는데 (계 21:9-10), 이는 그가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음녀를 보여준 것과 같다 (계 17:1-3). 이 두 구절은 모두 삽입 구절들이다.

G. 천년왕국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땅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을 방문하여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¹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²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³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 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며 ⁵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⁶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시 48:1-6)

²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³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 2:2-3)

IV. 예루살렘을 향한 전투

A.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투는 극심한 영적, 정치적, 군사적인 전투이다.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전투가 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끝나게 될 것이며, 이때는 그분이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며 사단을 감옥에 던져 넣으시는 때이다 (계 20:2).

¹¹ ...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예수님]가 있으니 ...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 ¹⁹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적그리스도]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²⁰ 짐승[적그리스도]이 잡히고 ... ²¹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죽으매 ... ^{20:2}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³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계 19:11-20:3)

B. 모든 열방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일 것이다 (을 3:2, 12; 속 12:3; 14:2; 습 3:8; 계 19:19). 예루살렘은 이 지구상에서 큰 논란의 근원이며, 사단은 이 도시를 통치하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한 도시이며, 역사상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은 전쟁을 겪은 곳이다. 이곳은 20 번이나 파괴되고 재건되었으며, 86 번이나 그 주인이 바뀌었다. 이곳은 3 개의 유일신 세계 종교의 핵심 도시이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²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³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재림]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 (속 14:2-3)